기 고

펭귄도 고통을 나눈다

김광호
여수 여양고 교사

요즘 최저임금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너무 뜨거워 자칫 잘못하면 모두가 상처를 입을 지경이다. 그 뜨거움을 생각하다 보니 문득 남극 펭귄의 겨울나기 모습이 떠오른다.

펭귄은 수시로 시속 110㎞가 넘는 눈보라와 영하 50도의 극한상황에 처한다. 그때 펭귄은 수만 년을 본능적으로 이어 온 방법으로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한다. 펭귄은 혹독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허들링(Huddl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허들링이란 다른 게 아니다.

영하 50도 이겨내는 허들링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동료와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이겨 내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맨 바깥의 펭귄들이 체온이 떨어질 때쯤이면, 안쪽에서 체온을 보존한 펭귄들이 바깥쪽 펭귄들에게 자리를 바꿔 준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허들링이다.

하등 동물이라고 칭하는 그들은 그렇게 칼바람과 차가운 공기를 이겨 내며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 왔다. 반면 고등 동물이라는 인간은 그렇게 약자의 고통을 안아 주지 못한 채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 왔다. 교과서에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알려 준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 말은 틀리지 않다. 많은 사람들 또한 그 말이 진리인 줄 안다. 그러나 사람이 펭귄보다 고통 분담을 하지 못하니 더 지혜롭다 하기 어렵다.

물질의 풍요는 정신의 여유와는 상관이 없는 듯하다. 없이 살던 시절에는 그래도 서로 챙겨 주고 위해 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의 맛을 알고부터는 하등 동물로 전락했다. 누가 펭귄을 하등 동물이라 칭했는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으스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고 고고한 척하며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까지 한다. 서글픈 일이지만 이젠 펭귄이 사람에게 하등 동물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줘도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됐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펭귄들도 고통을 분담하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약자들의 생존권에 그렇게 천박한 마음을 보일까? 우리 사회는 이웃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과 믿음이 약하다. 과연 우리 마음에 보편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세월을 외세에 시달리면서 살아 왔다. 그런 와중에서 민족보다 개인을 중시했던 위정자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은 나만, 가족만, 집안만을 생각하며 출세라는 단어를 합리화하면서 돈과 권력을 차지했던 것이다.

약자의 아픔을 보듬는 사회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민초 또한 생존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야 했고 옆을 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 차가운 가슴이 쌓이고 쌓여서 이젠 이웃의 아픔은 고사하고 이웃의 기쁨까지 시기하는 이상한 풍조까지 생겼다.

머지않아 교과서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지 모른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동물의 한 부류이며 매우 이기적인 개체일 뿐이다. 다만 나를 넘어 너까지 생각하는 마음을 지녔을 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한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소아적 자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린 영영 부끄러운 고등 동물(?)로 살아갈 것이다.

요즘 무더위가 극성을 부린다.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것은 아이스크림도 아니요 물놀이도 아니다. 약자의 고통 지수까지 공감하는 드넓은 가슴이다. 바로 보편적인 사랑과 믿음을 공유하는 길이다.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성실한 삶의 대가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비록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사회와 국가가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우리 함께 살자'는 공동체에 대한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때이다. 지금이 바로 이웃의 고통 지수를 낮추어 주는 백의민족만의 허들링을 보여 줄 때이다. 펭귄의 사례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어려울수록 공동체성을 발휘해 서로 상생하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올 여름의 극한의 폭염도 모두가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늘 자 '월요광장'은 필자인 정봉남 순천기적의도서관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쉽니다.

법조칼럼

계엄령 검토 문건,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훈
변호사

최근 언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에 대비한 촛불 집회 무력 진압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령 검토 문건이다.

일각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부 지휘부 간의 갈등, 기무사령관과 담당 실무자간의 갈등, 거짓말 다툼을 가리켜 '하극상' '당나라 군대'라고 언급하며 연예계 소식 다루듯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툼은 흥밋거리가 될 수 있지만, 계엄령 검토는 단순한 문건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큰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계엄령 내부 검토 사건에서 보여지는 군당국 및 기무사의 태도는 처음에는 단순 유언비어라고 하였다가, 계엄령을 실제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검토 때문에 단순히 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법률 전문가에게 유권 해석을 했더니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정식 질의가 아닌 단순 유선 질의에 감사원장이 일반론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

계엄령 문건의 심각성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곳이 담당 기관인 합동참모본부가 있음에도 기무사라는 곳에서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것과 그 계획의 정도에 있어 구체적인 병력 투입 계획, 우리나라 국민을 잠재적인 시위 세력으로 전제하고 강경한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는 전직 기무사사령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며, 기무사를 통한 12·12 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 정권을 탈취하였다는 사실이 오버랩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계획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 및 광주시민들은 이 사안을 엄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나 여권 수뇌부들은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계엄령 검토 문건은 단순 계획이 아니라 당연히 시행될 것이라 전제하고 촛불 집회에 나온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겁을 주는 과정에서 제2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희생자 발생을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치부했을 것이다.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한 국회의원 체포나 주요 시설에 대한 특수부대 배치, 언론 장악, 외국 대사관에 대한 홍보 등도 실제 시행을 전제로 내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다고 해서 단순히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 전 국방부장관 등의 책임 공방과 박근혜 정부의 적폐 논란이라는 프레임만으로 접근해서는 개혁 대상에 해당하는 군 당국이나 기무사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탄압 및 군기 잡기로만 받아들일 뿐 자신들의 개혁 등 근본적인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문민정부에서부터 현행 정부까지 이루지 못한 기무사령부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계엄령 검토 행위가 단순 문건 검토의 단계에 불과한지, 실행을 준비했던 것인지, 어떻게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 고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지역 인재의 요람으로

김병규
광주시 혁신도시협력관

연일 전국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자취방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열정은 이보다 훨씬 더하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민선 7기 광주시도 시정의 역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두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처럼 큰 산업단지도, 부산 같은 천혜의 해양 자원도 없는 광주는 오랜 세월 그만큼 취업의 문이 좁았고, 우수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높은 교육열 덕분에 여느 도시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많았음에도 고스란히 타지로 보내야 했던 우리 지역에 빛가람 혁신도시가 들어섰다. 전남(나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명실상부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조성 성과 역시 광주와 전남 전역에 이르고 있다.

지역 상생 발전의 터전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2013년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다. 2014년 198명(채용 인원의 11.2%)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11명(채용인원의 14.06%)의 지역 인재가 채용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권고 사항이었지만, 2018년 3월 27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늘려 2022년부터는 이전 공공기관 총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됐다.

의무 채용이 시작되는 올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260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우리 지역 출신의 인재도 채용 인원의 18%인 469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 인력 156명을 제외하면 하반기에는 313명의 지역 인재가 추가 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채용 인원이 늘었다고, 좋은 일자리가 확보됐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그동안 기업이 지역 전출을 꺼리고 수도권에 밀집한 이유 중에는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탓도 있었다. 때문에 지역 사회는 정부 정책에 맞춰 이제는 좋은 일자리에 걸맞은 우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소재 대학 및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특화 교육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별 수요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등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인재들이 맞춤형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광주시에서 추진한 우리 지역 대학생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소재 대학에서 추천한 대학생 80명이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세 곳을 방문, 시설 투어와 함께 기관이 요구하는 인재상, 채용 계획 등 기관 정보를 현장 설명을 통해 들었다.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준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시·이전 공공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 수요와 공급 정보 교환은 물론 이전 공공기관 대학생 인턴제 시행, 강사 지원 등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 공헌 협력 사업 또한 서둘러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취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고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은 양질의 오픈 캠퍼스 운영과 공공기관 인력을 활용한 강사와 커리큘럼 등을 지원하고, 대학은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학과 개설과 실습 기자재를 확보하는 등 실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정신적으로 정의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 인구의 주역인 청년 인재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 16개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한 빛가람 혁신도시는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이 분명하다. 이전 공공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인재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은 물론 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社 說

폭염 저감형 도시 마스터플랜 마련 시급하다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25일째 맹위를 떨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폭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강도가 세지는 데다 지속 기간도 길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은 엊그제 발표한 폭염 보고서에서 지난 50년간(1968~2017년) 광주·전남의 연평균 폭염 일수는 6.2일이었지만 최근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평균 폭염 일수는 2004년 13.0일, 2006년 11.6일, 2012년 11.7일, 2013년 16.3일, 2016년 18.6일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1세기 말에는 연평균 폭염 일수가 적게는 27.1일, 많게는 73.1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 시작일도 광주와 광양의 경우 7월 중하순에서 5월 말로 50여 일가량 앞당겨졌다.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광주에서는 353명(전국의 4.5%), 전남에서는 965명(〃 12.2%)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광주 4명, 전남은 10명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전남 지역은 고령화와 도시화 등으로 폭염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먼저 폭염이 법적 자연재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야 하지만 지역별 기상 자료와 피해 사례를 반영한 시군구 단위의 폭염 위험 지도 제작과 주민 건강, 농수축산, 산업 등 각 분야의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토지의 이용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세심한 정책 수립과 녹지 및 대중교통 확대, 바람길 조성 등 도시 자체를 폭염 저감형으로 만드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도내 저수지 고갈 이러다 농사도 못 지을라

장흥의 한 양식장에서 광어 13만 마리가 폐사하고 온열 환자가 급증하는 등 갈수록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뭄까지 겹쳐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 벼농사를 걱정하는 농심(農心)도 타들어 가고 있다.

가마솥보다 더 뜨거운 최악의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여름 가뭄이 덮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댐과 저수지 저수율이 경계 및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52.1%로, '경계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 평균 저수율 64.2%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 지역 4대호 저수율 역시 마찬가지다. 나주호 24.7%(평년 대비 40.8%), 담양호 33.7%(평년 대비 53.1%), 장성호 51%(평년대비 75.7%), 광주호 52.3%(평년 대비 64.8%)로 모두 평년(68%)이하 수치를 기록 중이다. 저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 단계'에 해당된다. 전남 지역 주요 저수지 15곳도 저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심각 단계'에 들어갔다. 나머지 25곳은 '경계', 63곳은 '주의', 427곳은 '관심' 단계다.

문제는 벼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달부터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수율이 계속 떨어질 경우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가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나주 등 전남 36개 지역에 수자원 추가 확보 등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전남도와 시군은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관정 개발 등 용수 개발 사업비를 긴급 투입해 벼농사까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폭염

김유정의 소설 가운데 '땡볕'이라는 작품이 있다. 삼복더위에 병든 아내를 지게에 지고 대학 병원을 찾아가는 어느 사내의 이야기다. 사내는 희귀병에 걸린 아내를 보여 주면 무료로 고쳐 준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아간다.

진찰 결과 아내의 배 안에는 죽은 아이가 들어 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얼마 못 널길 거라는 말을 듣지만 아내는 수술을 거부한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동의서부터 쓰라는 것이 미덥지 않았다. 사내는 다시 아내를 지게에 들어앉힌다. "덕순이는 시선을 외면하여 뚱싯뚱싯 아내를 업고 나왔다. 지게 위에 올려놓은 다음 엎디어 다시 지고 일어나려니 이게 웬일일까, 아까 오던 때와는 갑절이나 무거웠다."

한낮의 뙤약볕은 무쇠도 녹일 것처럼 뜨겁다. 집으로 가는 길, 아내는 냉수를 사 달라는 부탁을 하더니 이웃에서 빌린 쌀도 꼭 갚으라고 당부한다. 사내는 마치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 먹먹하다. 잠시 지게를 내려놓고 냉수를 사 주는 그의 얼굴에 회한의 빛이 어린다.

중병에 걸려 가망이 없는 부인을 지게에 지고 가는 가장의 심사가 오죽할까. 소설 속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사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가혹하고 무참하다. 1937년 작가 김유정이 타계하기 한 달 전에 발표한 '땡볕'은 2018년 오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는 쪽방 등에 거주하는 소외된 이웃에게는 재해나 다름없을 터다.

2016년 세상을 뜬 신영복 교수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한다"며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한다"고 고백했다. 신 교수의 성찰이 울림을 주는 것은 작금의 상황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생계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는데, 오늘의 현실에서 오아시스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아마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아닐지.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4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